

2025 4

경기전망(BSI)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5. 9월 기준
- 분석대상 : 121개 응답 업체

2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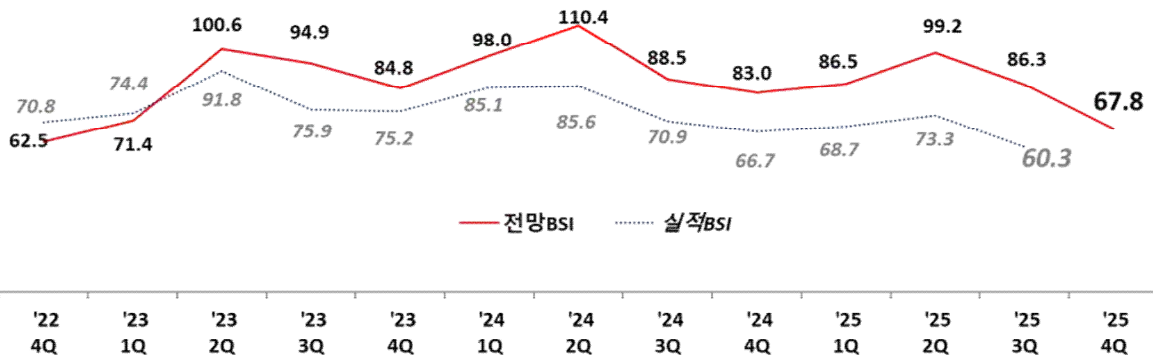
II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 2025년 4분기 전망 BSI '67.8', 3분기 실적 BSI '60.3'

- 국내 기업 경기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감. 자동차와 철강은 관세 장벽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체감 경기 위축이 두드러짐. 반면 조선과 항공 등 기타운송장비 산업은 해외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발주 확대 기대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76.0), 설비투자(75.2), 영업이익(68.6), 자금사정(64.5),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142.9), 기계·장비(71.4) 자동차·부품(69.6), 철강금속(55.0), 전기·전자(47.8), 기타(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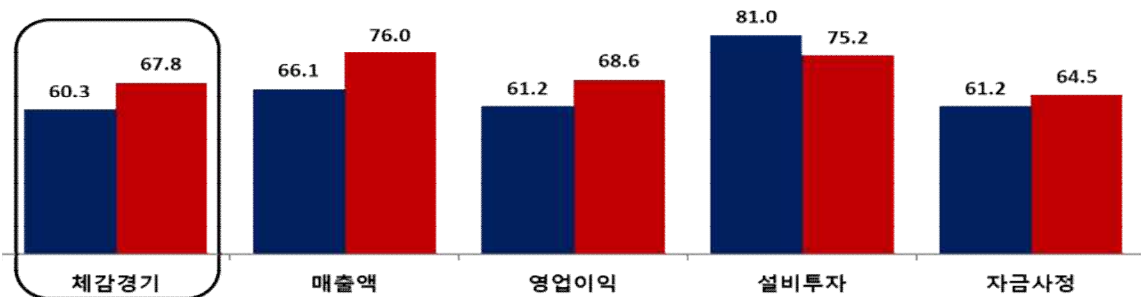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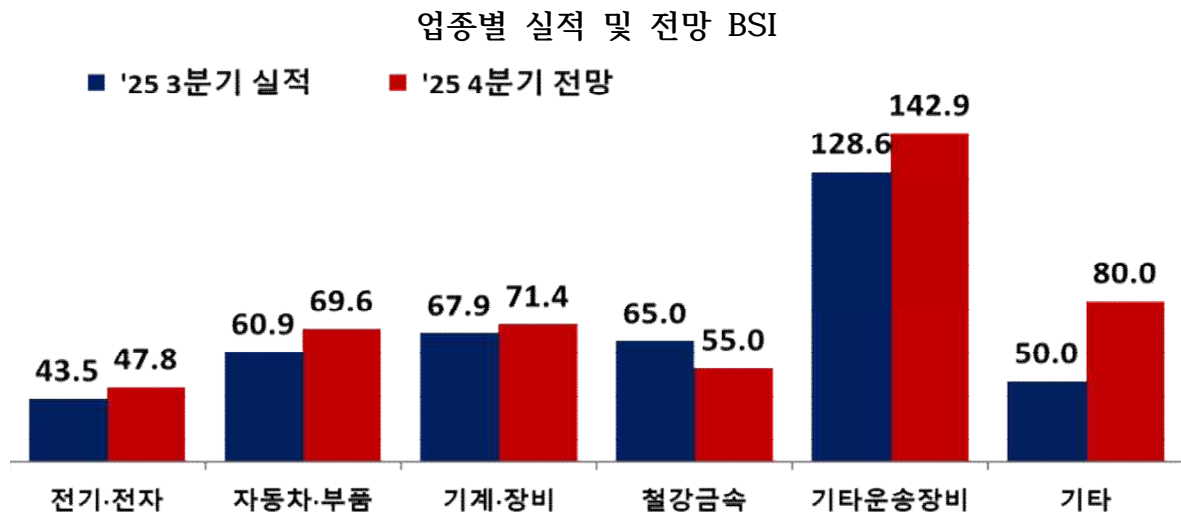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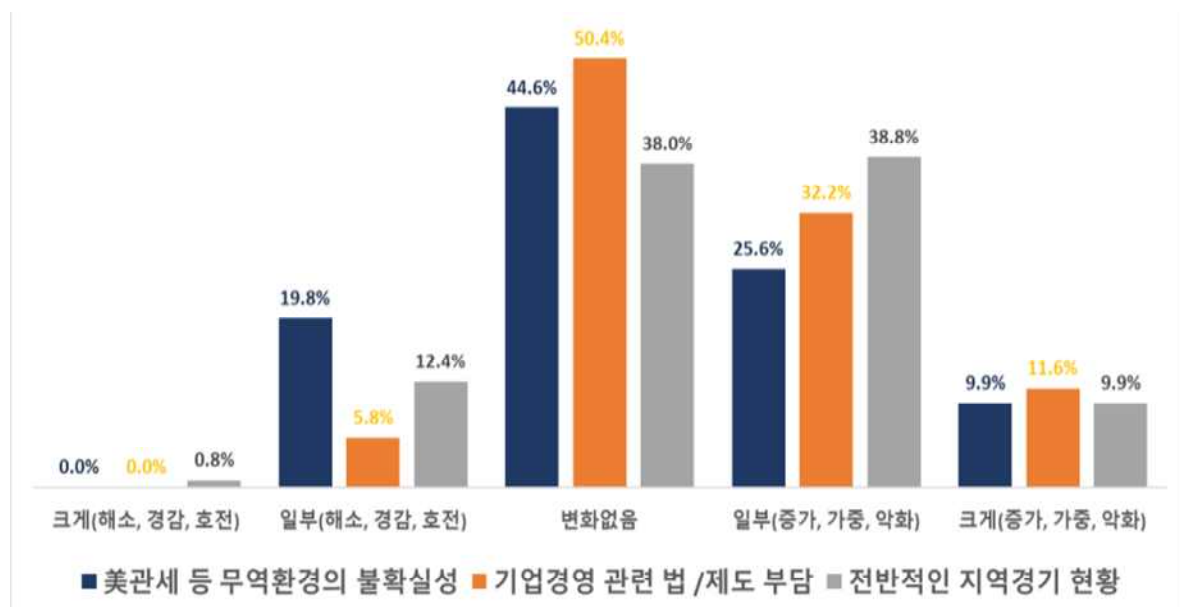
■ '25 3분기 실적 ■ '25 4분기 전망





- 새정부 출범후 체감하는 변화는 무역환경 불확실성과 법/제도 부담은 '변화없음'(44.6%, 50.4%), 전반적인 지역경기 현황은 '일부 악화'(38.8%)을 가장 많이 꼽아..
- 美관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은 이어서 '일부 증가'(25.6%), '일부 해소'(19.8%), '크게 증가'(9.9%) 순으로 응답
-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의 경우 다음으로 '일부 가중'(32.2%), '크게 가중'(11.6%), '일부 경감'(5.8%)의 순으로 응답.
- 전반적인 지역 경기는 '변화없음'(38.0%), '일부 호전'(12.4%), '크게 악화'(9.9%), 크게 호전(0.8%) 순으로 응답.

새정부 출범후 체감하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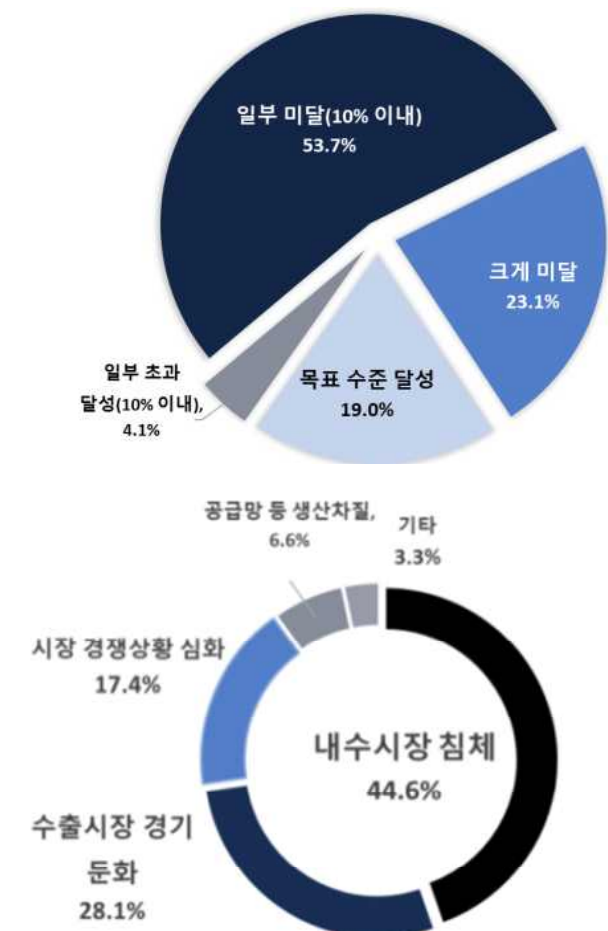


Ⅲ

제조기업 경영애로 및 입법과제 조사

- 올해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대비 실적 전망에 ‘일부 미달(10% 이내)’(53.7%), ‘크게 미달’(23.1%)로 응답업체의 76.8%가 미달
 - 이어서 ‘목표 수준 달성’(19.0%),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4.1%) 순으로 응답하였고, ‘크게 초과 달성’은 응답자 없음.
- 현 상황에서 매출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에 ‘내수시장 침체’(44.6%)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 이어서 ‘수출시장 경기 둔화’(28.1%), ‘시장 경쟁상황 심화’(17.4%), ‘공급망 등 생산차질’(6.6%)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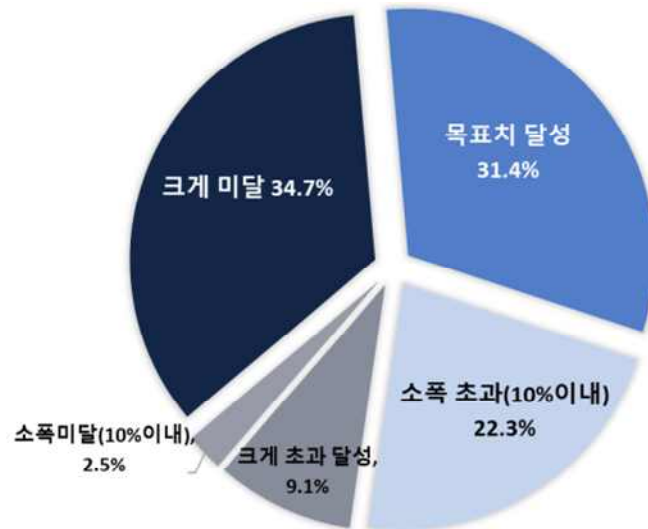
올해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 대비 실적 전망(위)및 매출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아래)



● 당초 계획했던 연간 영업이익 대비 실적 전망 34.7%는 ‘크게 미달’

- 다음으로 ‘목표치 달성’(31.4%), ‘소폭 초과(10% 이내)’(22.3%), ‘크게 초과 달성’(9.1%), ‘소폭 미달(10% 이내)’(2.5%)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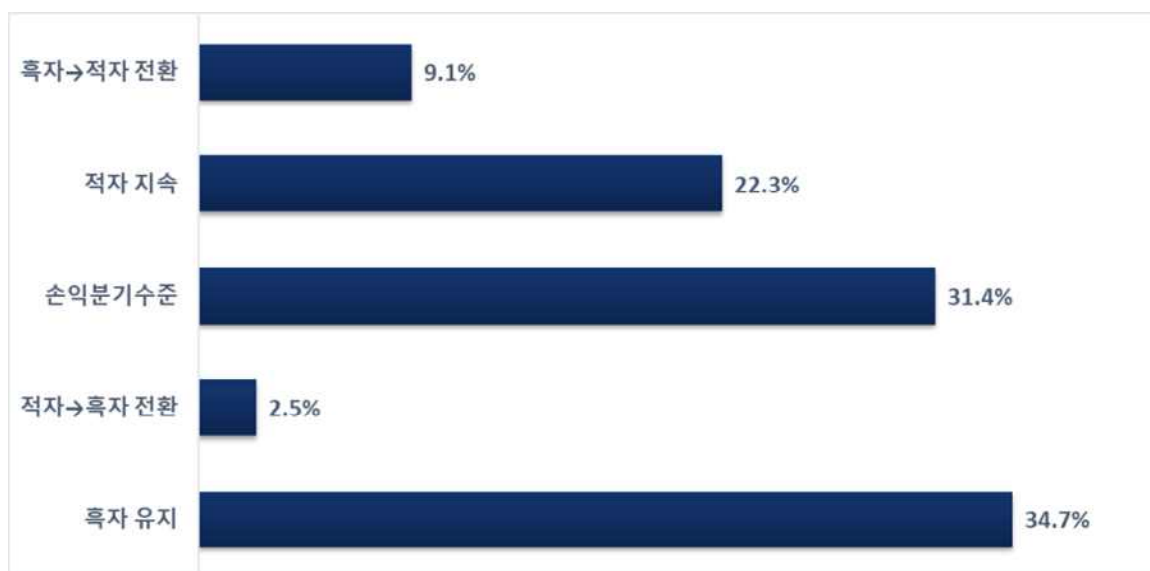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34.7%가 ‘흑자 유지’

- 다음으로 ‘손익분기수준’(31.4%), ‘적자 지속’(22.3%), ‘흑자->적자전환’(9.1%), ‘적자->흑자전환’(2.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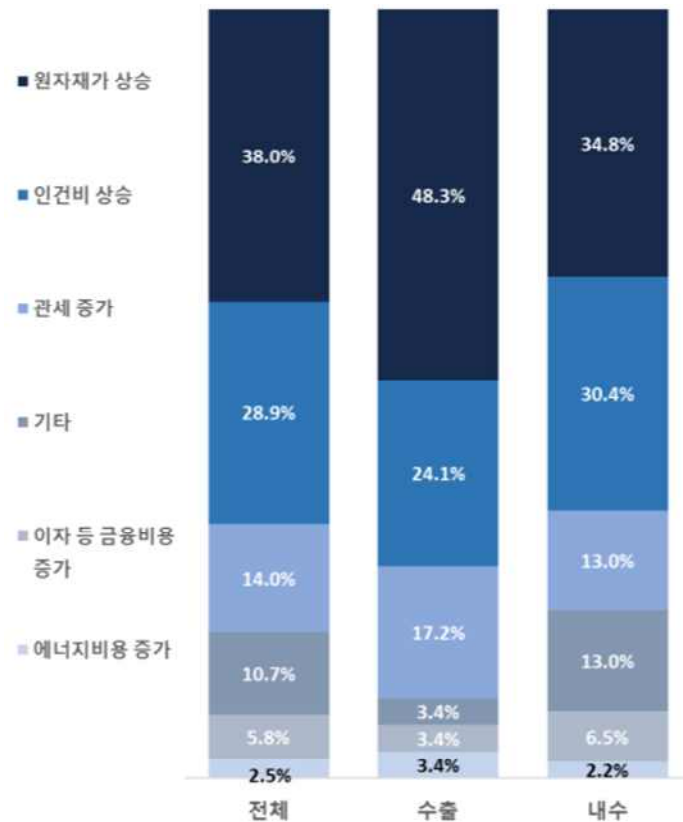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상황



● 기업경영 상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은 ‘원자재가 상승’(38.0%)

- 이어서 ‘인건비 상승’(28.9%), ‘관세 증가’(14.0%), ‘기타’(10.7%),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5.8%), ‘에너지비용 증가’(2.5%)의 순
- 매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 내수기업 모두 ‘원자재가 상승’(각 48.3%, 34.8%)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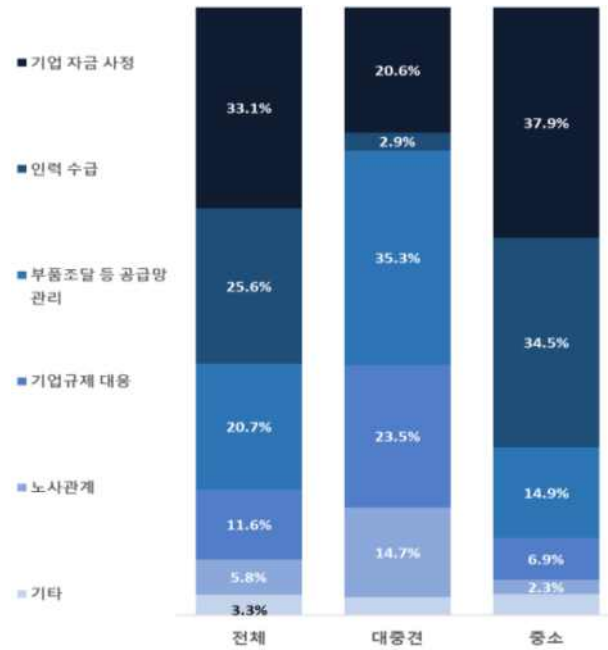
기업경영 상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



● 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기업 자금 사정’(33.1%) 꼽아

- 다음으로 ‘인력 수급’(25.6%),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20.7%), ‘기업규제 대응’(11.6%), ‘노사관계’(5.8%) 등의 순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35.3%)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 사정’(37.9%)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음. 특히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중소기업이 더 큰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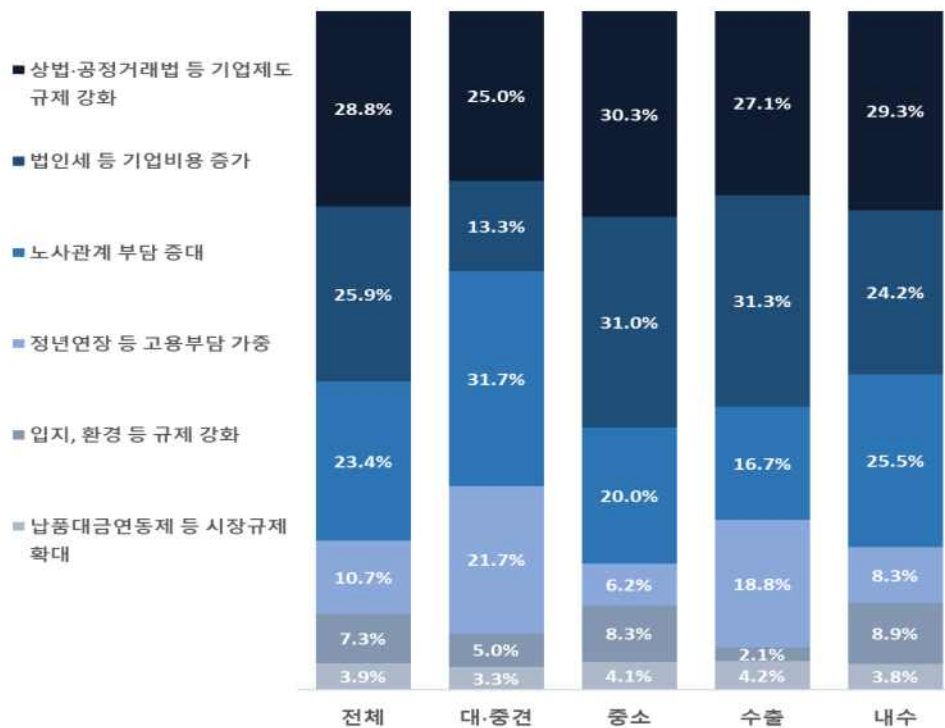
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



● 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제도 규제 강화’(28.8%)

- 다음으로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25.9%), ‘노사관계 부담 증대’(23.4%),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10.7%),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7.3%), ‘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3.9%)의 순으로 응답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분야



● 신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분야는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26.5%)

-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19.3%),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12.2%), ‘부품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11.8%), ‘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9.2%), ‘외국인고용 등 인력수급 지원’(6.7%), ‘AI 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6.3%), ‘첨단산업 투자 지원’(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대·중견, 중소기업 모두 ‘고용,노동시장 유연화’(각 33.3%, 23.8%)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지만, 다음으로 대·중견기업은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18.2%), 중소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0.3%)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매출형태별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또한 ‘고용,노동시장 유연화’(각 27.6%, 26.1%)으로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음, 그러나 수출기업은 ‘AI 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15.5%), 내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1.1%)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분야

